# 월정사 자연학습원 운영

## 원주 치악산에…실직자엔 무료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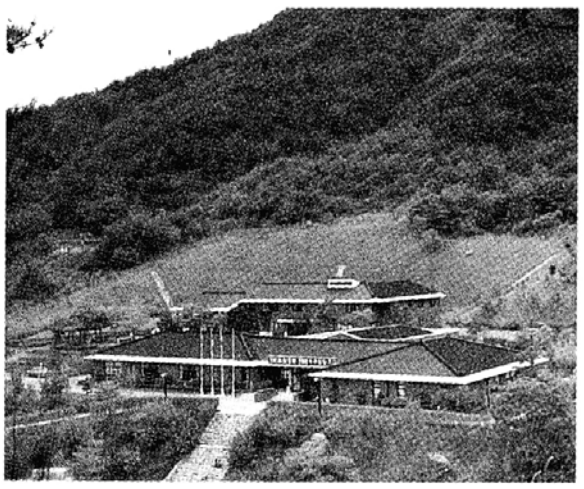
치악산 자락에 자연과 부처님 법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연학습도량'이 마련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가 강원도로부터 자연학습원을 위탁받았다. 도 단위의 자연학습원을 불교계에서 위탁받기는 이번이 처음. 월정사는 7월 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은 1만5천여평의 부지에 연수동·숙박동·표본관 등의 건물과 6개 자연관찰로, 10여종의 체력단련시설, 운동장 3곳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 경내를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포교기반을 다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치악산등반, 드림랜드 관람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학습목표는 자연보호, 심신단련, 여가활동, 윤리의식 함양 등이다. 학과편성은 자연학습, 소양교육, 심신단련, 레크리에이션 등인데 이를 위해 월정사측은 불교적인 심성교육이 녹아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원장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가족단위 연수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함양하고 불교청소년단체, 신행 소모임 등의 연수 뿐만 아니라 실직자를 위한 무료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월정사가 교계 최초로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자연학습원 전경.

◇워싱톤 노턴버지니아 커뮤니티대학에서 7일 열린 대행스님의 법회에 8백여명의 교포·미국인 불자들이 참여했다.

# "삶은 苦가 아니다"

## 대행스님 워싱턴·뉴욕법회 '성황'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본지 회장)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톤과 뉴욕에서 '참나 찾기'를 주제로 개최한 법회가 교포·미국인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성황리에 회향됐다.

워싱톤 노턴버지니아 커뮤니티대학 디강당에서 7일 열린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 자기의 근본을 믿고 일체 집착과 욕심을 여여하게 놓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삶은 고(苦)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암스님(보림사 주지), 추엔광참스님(前미주불교도회장), 앤후세벡박사(국립보건원장), 마이클 보일란교수(메리마운트대·종교학) 등 8백여명이 참석한 워싱톤 법회는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몰려 30여분 지연됐고, 입장을 하지 못한 불자들이 강당 로비에 마련된 TV로 중계되는 법문을 들어야만 했다.

14일 뉴욕 라과디아 커뮤니티대학에서 열린 뉴욕법회에도 7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대행스님은 "불교의 불(佛)은 일체만물만생에 있는 것이며 삶이 곧 교(敎)"라며 "불교라는 이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법회 후 미국인 불자들에게 '사회·도덕·윤리와 옳고 나쁜 행위에 선(禪)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어떤 스승을 만나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 포튜' 등 현지 언론들은 대행스님의 워싱톤·뉴욕 순회법회에 대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대행스님의 법문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교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반영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호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난공훈 예우하자

## 전실지붕 해체복원 내·외부 돔 방수

# 석굴암 '수술'

경주 석굴암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재관리국과 불국사(주지 설조)는 19일 석굴암에서 기술지도단회의를 갖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석굴암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대한건축학회가 제출한 '석굴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 미룰 경우 원형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불국사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인 창성건설(대표 송일동)에 용역을 의뢰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보수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총공사비 3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보수의 주요대상은 목조전실과 콘크리트 내·외부 돔의 누수부분 등. 전실의 경우 지붕을 해체 복원하고 노후기와와 뒤틀려 있는 바닥의 전돌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콘크리트 내부돔은 천장을 중심으로 본존불 위쪽과 벽면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부위를 온·습도의 영향이 없는 무수축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외부돔은 안쪽 측면에서 발견된 4곳의 누수부분을 특수 방수처리한다. 이밖에 소음과 진동으로 석굴암 벽면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공기조절시설이 교체되고 석굴암 외곽봉분의 잡목들도 제거된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 조계종 명예포교사 10월중 임용

### 본사주지 추천거쳐

명예포교사 제도가 시행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명예포교사 제도 시행에 따른 세칙을 마련, 10월 중 명예포교사를 임용키로 했다.

명예포교사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명예포교사 수여자격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에 종사했거나 △대학교수 및 경력자 △종립학교장 △10년 이상 출가수행 경력이 있고, 현재도 포교활동을 하며 △불교신행단체 지도경력 10년 이상 △불교 전문서적을 3권 이상 출간했거나 불교관련 논문 10편 이상을 학술권위지에 발표 △국위를 선양한 불자체육인 등이며 부적격자의 남발방지를 위해 본사주지 및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이상 소임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역량있는 분들의 업적과 원력을 종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명예포교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명예포교사는 포교사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생태학교지도자 교육 봉은사 7월14일까지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22일부터 7월14일까지 신도회 간부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학교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의 지원으로 사찰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생태학교는 수료생을 중심으로 환경모임을 구성,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지방 사찰에서 환경교육을 의뢰할 경우 생태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02)765-6324 김재경 기자

## BBS 공금횡령 재수사 서울 서부지청 공안부서

서울지검 서부지청 공안부는 10일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재수사 착수는 4월12일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청 등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낸 것과 5월초 불교방송 장부조사과정서 김현안씨가 8억3천만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데 따른 것.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노인모시는 자녀모임' 동화사 8월결성

대구 동화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 부설 노인상담전화(대표 우재현 대구대교수)는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을 8월중에 결성한다.

이 모임은 집단의 성격별로 며느리모임, 딸모임, 아들모임과 같은 소집단을 꾸리고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형성, 상호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부모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 모임이 활성화되면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세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053)476-66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뉴스 & 뉴스

### "종단연수원 마련해야"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6일~17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봉선사 등의 주지스님 2백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말사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연수교육을 위한 상설 연수원의 필요성을 절감, "종단연수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 24일 '생태농활' 워크숍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는 24일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불교환경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생태 농활'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이 '왜 생태농활인가', 윤영우 기독학생회총연맹 대학부장이 '대학농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제한다. 김재경 기자

### '늘푸른 알뜰매장' 개설

진각종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25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1층에 중고물품 상설 교환매장인 '늘푸른 알뜰매장'과 주민쉼터를 개설한다. 늘푸른 알뜰매장에서는 도서와 환경사진 등을 비치하고 각종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진각복지회는 또 25~26일까지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배포 △환경상품 및 자원재활용 장난감 전시 △가전제품 무료수리 등도 펼친다. 김재경 기자

### 조선시대 청동종 밀반출

조선시대에 제작된 청동종을 미국으로 밀반출, 처분하려한 김정웅 前 한국고미술협회장이 12일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 국내에서 2억원에 구입한 16세기초에 제작된 청동종을 미국으로 밀반출한 뒤 미국 골동품 경매상 등을 통해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기석 기자

## 목탁소리

### 여의도불교문화센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여의도는 시끄럽다.

정치 경제 방송의 1번지로 자리잡으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여의도. 이 여의도가 최근 불교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여의도에 불교문화센터를 설립, 정치 경제 언론 종사자들을 향한 포교의 거점도량으로 삼으려 했으나 준비업무를 맡은 한 스님이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냥 잠적한 것이 아니라 준비자금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 교계의 단체들은 이 일을 두고 총무원의 종무원 관리 헛점과 주먹구구식 불사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물론 132회 중앙종회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 거론됐다. 총무원은 여의도문화센터 설립을 위해 그간 2억원의 재정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6천9백30만원의 행방이 그 스님과 함께 묘연해 졌다고 하지만 아직 여기에는 적잖은 의혹이 있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내부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 어렵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가 "중앙종회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회견을 취소한 것도 석연치 않다.

총무원은 종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7월중에 문을 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무원의 장담대로 다음달 개원이 되더라도 여의도불교문화센터는 좋은 취지에 비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크게 부각되는 상처는 불교계에 대한 각계의 신뢰도 문제다.

한 스님은 "이 사건을 정치인에게 들었다"며 부끄러워 했다. 총무원이라는 거대 기구가 추진한 일이 한 스님의 '딴 생각'으로 교계 안팎을 시끄럽게 한 것은 조계종 전체에 대한 신뢰를 깎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무원의 한 스님은 이 일을 '호사다마'라 표현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사라진 정재를 다시 찾고 잠적한 '딴 생각'의 주인을 징계하고 문화센타의 문을 여는 일상적 처리에 앞서 부끄러운 상처를 주춧돌로 삼아 세워지는 문화센터를 어떻게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도량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고민에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ytlim@buddhapia.com〉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되는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유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L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사례문

이영래(57세,목상세계챔피온 트레이너) 본인은 세계챔피온인 문성길, 장정구,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다리등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등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고 침도 많이 맞아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광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는 셈치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짓말처럼 아픈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온을 만들고저 땀을 흘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저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준 삼천실업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래

청보원 서울:(代)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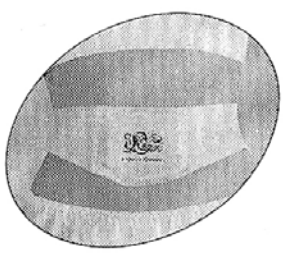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 예금주 : 삼천생업
· 농 협 : 394-01-004150
· 우체국 : 100149-0210155
※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등기, 소포우송)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물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